

# 농어촌 주민 생활 전반 '종합 만족도' 상승

### 농촌진흥청, 복지실태조사 결과 환경·경관 만족도 높고 교육 여건 만족도는 낮아... 교육·의료 인프라 개선 과제로

농촌진흥청이 발표한 '2025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결과, 농어촌 주민들은 환경과 경관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반면 교육 여건에 대한 만족도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전국 읍·면 지역 4,000가구를 대상으로 경제활동, 복지, 교육, 여가, 의료, 생활 전반 등 6개 부문에 대해 실시했다.

조사 결과 지역 생활 전반에 대한 종합 만족도는 56.8점으로 전년보다 2.0점 상승했다. 항목별로는 환경·경

관 만족도가 66.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교육 여건 만족도는 48.6점으로 가장 낮았다.

의료 부문 만족도는 51.1점으로 집계됐다.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병·의원인 87.0%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 이용 비율은 2.7%에 그쳤다. 이에 따라 농촌 의료 서비스 개선과 공공보건기관 기능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복지 부문 만족도는 53.4점으로 2021년보다 5.4점 상승했다. 그러나 영유아 양육 과정에서 교육 기반 시설 부족(28.8%)과 돌봄 정보 부족(14.1%)이

주요 어려움으로 꼽혀 보육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교육 부문에서는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40만9천원으로 2020년보다 8만2천원 증가했다. 응답자들은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 교육과정 운영(30.6%), 우수 교사 확보(18.8%), 학교 시설 개선(14.3%) 등을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여가 부문 만족도는 55.9점으로 소폭 하락했다.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의 제약 요인으로는 적합한 시설 부족과 높은 비용 부담이 주요 원인으로 조사됐다.

경제활동 부문에서는 월평균 소득이 200만~300만원 미만인 가구가 23.2%로 가장 많았고, 가구당 월평균 생활비는 177만1천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활용품 구매에서 인터넷 쇼핑물 이용 비중이 크게 늘어난 점이 눈에 띄었다.

김경수 농촌진흥청 농촌환경안전과 과장은 "이번 조사 결과는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을 더욱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 수립의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일자리센터가 도내 구직자들의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넓히기 위해 지난달 25일 '현장면접의 날'을 운영했다.

## '현장면접의 날' 운영으로 취업 기회 확대

### 전북자치도일자리센터, 미화원 3명 채용 목표 구직자 20여명 참여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일자리센터가 도내 구직자들의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넓히기 위해 지난달 25일 '현장면접의 날'을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기업 현장을 중심으로 한 채용 연계를 강화하고, 구직자들이 보다 신속하게 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백상코퍼레이션(주)의 미화원 3명 채용을 목표로 진행됐으며, 이날 면접에는 20여 명의 구직자가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현장면접의 날'은 구인기업과 구직자가 한자리에서 직접 만나 면접을 진

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복잡한 채용 절차를 줄이고 현장에서 곧바로 면접이 가능하도록 해 구직자들의 편의를 높였으며, 기업 역시 필요한 인재를 보다 빠르게 선발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일자리센터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구직자들에게는 빠른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구인처에는 적합한 인재를 연결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고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 전북특구, 이차전지·반도체 소재 혁신클러스터 육성 본격화

### 한솔케미칼과 신사업 발굴 협력... 국가전략기술 연계 강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이하 연구개발특구본부)가 지역 핵심 앵커기업과 손잡고 이차전지·반도체 소재 분야 혁신클러스터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특구본부는 지난달 31일 한솔케미칼 전주공장에서 '전북특구 육성자문단' 네트워킹 행사를 열고, 신사업 아이템 발굴과 국가전략기술의 실질적 연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 내 산·학·연·관 혁신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첨단 소재 분야의 사업화 성과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특구 육성자문단'은 지난 2018년 발족한 협력형 네트워크로, 40개 지역 혁신기관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참여해 기술 교류와 정책 아젠다 발굴을 이어오고 있다.

전북특구본부는 현재 전북지역혁신허브 사업을 통해 전북연구개발특구 내 이차전지와 반도체 소재 분야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전북테크노파크 주관으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 한솔케미칼, 성일하이텍, 나노솔루션 등 11개

기관과 기업이 참여하며, 오는 2030년까지 총 291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솔케미칼이 기존 흑연 음극재보다 에너지 밀도를 10배 이상 높이고 충전 속도를 30% 이상 개선할 수 있는 실리온계 복합음극소재 개발 현황과 상용화 방안을 소개해 주목을 받았다.

또한 반도체 공정용 초고순도 과산화수소와 프리커서 소재 TSA(트리아실아민),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퀀텀닷 사업화 현황도 공유되며 차세대 소재 산업의 글로벌 확장 전략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한솔케미칼의 디스플레이 및 이차전지 박막 제조시설과 연구실을 직접 둘러보며, 각 기관의 핵심 역량과 기업의 기술 수요를 연계한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유진혁 전북특구본부장은 "혁신클러스터 상장은 시장 주도의 기술혁신 기업과 정책, 실증 중심 연구개발이 함께 이뤄질 때 가능하다"며 "한솔케미칼과의 신사업 협력은 전북특구 첨단 소재 밸류체인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 전북디지털융합센터, AI 기술 활성화 지원 참여기업 모집

전북테크노파크 전북디지털융합센터가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원을 받아 인공지능(AI) 기술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신청 기간은 3월 30일부터 오는 4월 17일까지다.

이번 사업은 정부의 지역 AI(인공지능 전환) 확산 정책에 맞춰 도내 기업의 AI 기술 도입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된다. 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AI 솔루션 개발과 고도화, 사업화를 지원해 실질적인 성과 창출과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지원 분야는 △AI 개발 △AI 솔루션 고도화 △맞춤형 패키지 등 3개로 나뉜다. AI 개발 분야는 기업 현장의 문제 해결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 개발과 실증을 지원하며, AI 솔루션 고도화는 기존 기술의 성능 개선과 최적화를 통

해 생산성과 활용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맞춤형 패키지 지원은 컨설팅, 기술이전, 지식재산권 확보, 신뢰성 평가 등을 종합 지원해 사업화 기반을 강화한다.

모집 규모는 총 6개사로, AI 개발 1개사(최대 1억4000만원), AI 솔루션 고도화 2개사(각 최대 8000만원), 맞춤형 패키지 3개사(각 최대 3500만원)다. 분야 간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중견·중소·벤처기업 및 스타트업 등이다. AI 개발과 솔루션 고도화 분야는 실증 테스트베드 확보가 필요하며, 관련 기업과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하다. 맞춤형 패키지 분야는 소상공인과 1인 창조기업도 단독으로 참여할 수 있다.

/오상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위기 '알림톡'으로 선제 대응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를 사전에 포착해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 알림톡' 서비스를 도입하고 맞춤형 복지지원을 본격 시행한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중기부는 코로나 이후 폐업 증가와 연계를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위기 알림톡'을 발송한다.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 17개 민간은행이 협업체 추진된다.

'위기 알림톡'은 정책자금·보증 및 은행 대출 이용자 가운데 경영 위기가 우려되는 소상공인을 선별해 발송된다. 알림톡에는 경영진단 방법과 맞춤형 지원 정책, 상담 절차 등 필요한 정보가 담겨 있어 소상공인이 자신의 경영 상태를 사전에 점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오상근 기자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지난달 31일 전북은행 본점에서 '2026년 전북은행 대학생 서포터즈 6기'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 '전북은행 대학생 서포터즈 6기' 본격 활동 돌입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지난달 31일 전북은행 본점에서 '2026년 전북은행 대학생 서포터즈 6기'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발대식에는 박춘원 은행장을 비롯한 전북은행 임직원과 최종 선발된 대학생 서포터즈 25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환영 세리모니와 임명장 수여 등 6기 출범을 축하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현장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

켰다. 이번에 출범한 대학생 서포터즈 6기는 오는 4월부터 8월까지 약 5개월 동안 활동하게 된다. 참가 학생들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직접 기획하고, 도내 대학 캠퍼스와 관광명소는 물론 SNS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우르며 전북은행 브랜드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오상근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